

친유럽·세계화의 승리...다시 '톨레랑스'

〈관용의 정신〉

중도 마크롱 프랑스 대선 압승

르펜 '프랑스 우선주의'의 패배
트럼프 "협력 기대" 축하 트위터
다음 달 총선 공화당과 맞대결

중도계 에마뉼엘 마크롱 후보가 압승을 거둔 프랑스 대선은 여러 면에서 유럽과 대서양 건너 미국에 큰 반향을 일으킨 중대 정치 사건이었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선택과 도널드 트럼프의 예기치 않은 미 대통령 당선 이후 프랑스 대선은 마크롱이 내세운 자유주의와 EU 통합, 그리고 국수주의적, 보호주의를 앞세운 극우 마린 르펜 후보 간의 전례 없이 치열한 이념 노선의 대결장이었다.

유럽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7일 유럽주의자 마크롱이 승리한 프랑스 대선 의 의미를 지적했다.

◇EU 동맹관계 유지=이번 대선은 프랑스가 경제 및 산업적 근경에 처한 상황에서 유럽과 세계화에 대한 국민투표의 성격이 짙었다. 프랑스 우선의 보호주의를 앞세운 르펜의 득세가 이러한 분위기를 부채질했다.

개방 경제의 득실을 둘러싼 논란이 치열했다. '유럽'은 프랑스가 당면한 문제들의 해결책이지 문제 자체가 아니라는 주장을 내세운 마크롱은 EU와 다른 동맹들로 부터 대선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지지를 받았다.

◇미국과의 협력관계 유지=마크롱은 미국과의 관계 및 프랑스 이익 보호에서 실용주의를 표방했으며 따라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포함한 프랑스 대외 관계에서도 앞서 정부의 외교 노선을 답습할 것임을 표명해왔다.

대선 기간 르펜을 칭찬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 마크롱에 '향후 협력을 기대'



최연소 대통령과 25세 연상 아내

에마뉼엘 마크롱(39) 프랑스 대통령 당선인(왼쪽)과 25세 연상 아내 브리짓 트로뉴가 7일 밤(현지시간) 파리 루브르박물관 앞에 나타나 손을 잡고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한다'며 축하를 보냈다.

◇극우 주춤, 그러나 포퓰리즘은 건재=르펜은 예상 밖 압도적 표차로 패했지만 그의 극우 국민전선(FN)은 지난 대선에 비해 괄목할만한 진전을 이룩했다. 결선에서 1000만 명 이상의 지지를 얻었다. 1차 투표에서 우파의 피용 후보나 극좌파 장 루크 멜랑송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 상당수가 르펜에 표를 던졌다.

극우파 뿐 아니라 개방 경제를 둘러싼 논란에서 나타난 좌파 움직임 등을 통해 포퓰리즘은 건재를 과시했다. 1차 투표에서 나타난 극좌파 후보 멜랑송의 약진은 결선에서 마크롱을 지지한 상당수 유권자가 마크롱의 노선에 동조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앙마르슈'의 3라운드-의회 총선=마크롱 신임 대통령은 우선 다음 달 총선에 에너지를 집중할 것이다. 창당한 지 불과 1년에 자금력도 부족한 신생정당 앙마르슈가 대선의 동력을 타고 총선에서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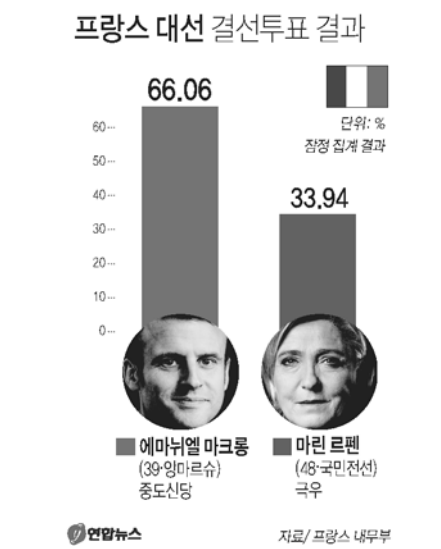
수의석을 차지할지는 미지수이다.

마크롱은 앙마르슈 의원의 절반 정도를 초선으로 희망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사회당이나 공화당 같은 기성정당 정치인들로부터 지지를 바라고 있다. 이미 일부 양당 정치인들은 앙마르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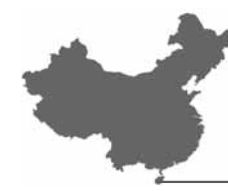
그러나 우파의 공화당은 다수의석 확보를 노리고 있으며 만약 공화당이 다수의석을 확보하게 되면 마크롱은 공화당과의 동거정부(코아비타시옹) 구성이 불가피해지면서 자칫 명목상 대통령으로 남을 위험성도 있다.

◇'개혁이나 치유(힐링)나'=프랑스가 대도시와 중소 도시, 동북부와 남서부, 식자층과 비식자층 등 고질적인 지역과 사회계층 간 극심한 분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마크롱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자신의 개혁 과제를 지체 없이 이행함으로써 장기적인 경제적, 사회적 격정거리를 해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수행하려면 이전의 개혁들



을 좌초시켜온 노조와 시위대 및 과업 등을 통한 극단적인 반대를 넘어야 한다. 마크롱도 선거 후 지지자들에게 "다수가 개혁을 선택했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시인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8 수양제 무장 우문술

우문술(宇文述, ?~616)은 수나라 대군 무전 출신으로 자는 백통이다. 선비족 출신으로 수양제가 집권하는데 크게 공헌했다. 수나라의 고구려 정벌에도 참여했으며 수양제 시대 대표적 탐관오리로 평가된다.

기록에 따르면 원래 성은 파야두였는데 후일 우문씨로 바꾸었다. 북주 왕조에서 입관해 상주국이 되었다. 궁술과 기마에 능해 뛰어난 무장의 자질을 갖고 있었다. 눈치가 빠르고 임기응변과 권모술수에 뛰어났다. 권력의 향배를 뒤쫓는데 탁월한 감각을 갖고 있어 일찍이 수문제의 차남 양광의 측근이 되었다. 수문제때 강남의 진나라 정벌에 참여해 안주총관이 되었고 양광의 천거로 수주자사와 총

하고 미워한다. 지금 황제 부부가 황태자를 폐하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적극 호응하면 나중에도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다." 결국 양소를 끌어들이는데 성공해 양광이 황태자가 되었다.

605년 양제가 즉위하자 좌우대장군, 하극공에 봉해졌다. 수나라는 돌궐 등 주변국 등과 우호관계를 맺었다. 607년 총독권의 계민 칸이 임조했다. 그에 대한 답례로 양제는 윤종 지방으로 행차해 그의 성을 방문했다. 고구려 양에게도 친서를 보내 임조하면 계민처럼 우대하겠다고 약속하며 불응시 정벌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러나 고구려 왕은 임조하지 않았다. 612년 고구려 정벌이 시작되었다. 당시 정권의 핵심은 양제의 사위 우문술의 아버지 우문술이었다. 그가 원정

3차례 고구려 원정 을지문덕에 완패

관 자리에 올랐다.

장남 양용을 대신해 양광을 새로운 황태자로 만드는 것이 그의 핵심 과제였다. 이성(二星)의 한명으로 존송반은 독고황후의 마음을 바꾸는 작업에 나섰다. 문제 부부가 양광이 거처하는 곳을 방문할 때마다 어여쁜 젊은 여인들이 시중을 들게 했다. 검소하고 절박한 것을 좋아하는 문제 부부의 마음에 들기 위한 연출이었다. 태자 양용은 운소훈이라는 첩에 깊이 빠져 부인 원씨를 멀리했다. 설상가상으로 부인 원씨가 갑자기 죽었다. 독고황후는 태자가 독살한 것으로 의심했다. 이래저래 태자에 대한 신뢰가 없어졌다. 양광은 우문술에게 향후 계획을 물었다. 그는 답하기를 "지금 황제와 조정 대신들은 중신 양소를 크게 신임하고 있다. 양소가 황태자 폐위를 지지하면 일이 쉽게 성공할 수 있다. 양소는 동생 양약을 크게 신임하므로 그를 우리편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양광은 그에게 양소를 끌어들이길 과업을 맡겼다.

그는 수도 장안에 도착해 술자리에 양약을 초대했다. 그 자리에서 은밀히 뇌물을 건네면서 말하기를 "지금 당신 형이 황제의 신임을 받고 있지만 황제 사후에는 누구를 믿을 것이냐" 양약은 놀라서 대비책을 물었다. 그는 답하기를 "월궁공 양소는 큰 권력을 갖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시기

군의 총사령관이 되었다. 그는 선발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남하했다. 빨리 행군하는데 방해가 되어 많은 식량을 땅에 파묻고 행군했다. 이에 가용식량이 얼마되지 않아 평양까지 가는 도중에 식량난에 봉착했다. 설상가상으로 고구려 을지문덕 장군의 유인술에 말려 하루에 7천 7승을 거두면서 급히 고구려군을 추격하는 바람에 병사들 체력이 고갈되어 버렸다. 을지문덕은 "만일 군대를 회군한다면 마땅히 왕을 모시고 양제에게 입조하리라고" 제의해왔다. 이에 원정군을 철수시켰다. 그러나 철군 길은 부상과 식량 부족으로 험난했다. 사방에서 고구려 군이 기습해 지형에 익숙치 못한 수군을 괴롭혔다. 30만 5천명 군대 중에서 살아 돌아온 병사는 불과 2700명이었다. 무기, 물자 모두 버리고 간신히 목숨만 부지한 채 살아 돌아왔다.

결국 그는 패전의 책임을 지고 모든 관직을 박탈당하고 평민으로 신분이 떨어졌다. 그러나 후방으로부터의 물자 조달이 원활치 못해 패전했다는 이유로 죄가 회복되고 2차 정벌에도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3차례 정벌은 처절한 실패로 끝났다. 수백만의 군인과 백성이 목숨을 잃었다. 이로 인해 민심이 크게 악화되었다. 616년 양제가 강남의 강도를 순행할 때 병이 위독해져 죽었다. 618년 양제가 살해되어 왕조가 붕괴했다.

'자유무역주의' 마크롱 당선에 외교가 안도

프랑스 대통령에 에마뉼엘 마크롱이 당선되자 외교가와 프랑스 한인사회는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됐다면서 안도하는 분위기가

마크롱은 경제와 대외관계 등에 있어서 전통적인 주류의 입장을 대변해온 서운 정치인으로, 무역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국가인 한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 프랑스수아 올랑드 대통령 밑에서 경제장관을 지낸 마크롱 당선인은 현 정부의 연속 선상에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그의 당선은 한국 정부로서는 프랑스, 나아가 유럽

연합(EU)과의 외교 및 교역 등에서 불확실성이 거의 사라지게 되는 장점이 있다.

마크롱은 평소 개방경제와 자유무역의 가치와 함께 유럽연합 잔류, 신산업 육성을 통한 프랑스 경제활력 제고 등을 역설해왔는데, 이런 입장은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에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평가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등을 놓고 트럼프가 정통적인 한·미 관계의 이익균형을 벗어난 '좌충우돌'성 발언으로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된 것과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마크롱의 당선은 극우 포퓰리즘을 차단했다는 면에서도 한국경제와 대외관계에 플러스 요인이다. 북한 핵 문제 등 안보·외교 분야에서도 마크롱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등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태를 비난해온 현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마크롱은 경제산업부(현 재정경제부) 장관 재직시절 한 차례 한국을 방문한 인연이 있다. 그는 2014년 11월 한·프랑스 경제장관급 회담 참석차 한국을 찾아 당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회담했다. 방한에는 한국계 입양아 출신인 장벨상 플라세 국가개혁 담당 국무장관이 동행했다. /연합뉴스



에마뉼엘 마크롱의 지지자들이 7일(현지시간) 파리 루브르 박물관 앞 광장에서 대선 승리 축하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동구 수기동 상가매매

20층 중 6층(45평)
 □ 천연로 전망 최고 리모델링 완비/주차 완비
 □ 보 1천만~월 70만

▶ 시세 1억6천 매가 1억1천(용5천)

전남 보성 반값아파트 (분양)

보성 역 1분!! 보성군청 5분!!
 총 187세대
 25평, 29평, 34평
 보증금 3,000만 월 40만

▶ 실 투자금액 300만!! ◀

경기도 여주시 반값아파트 (분양)

버스 정류장 5분! 가남초등학교 7분!!
 2017년 12월 성남장호원간 고속도로 예정
 24평 - 평단가 640만!!

▶ 실 투자금액 300만!! ◀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 광산구 쌍암동 (무인텔) 토 415평, 건 577평
 청단지구 쌍암동 1분, 총 28개 (월수익 3,000만 예상) 보 2억 월 1천만 (임대가능)
 ▶ 감정가 45억 → 최저가 25억

□ 부안군 진서면 (속박시설) 토 302평, 건 286평
 월수익 1,000만
 ▶ 감정가 8억1천 → 최저가 3억9천8백

□ 동구 금남로3가 (4층상가건물) 토 118평, 건 304평
 금남로 471억 1분
 총장로 중심 상업권
 ▶ 감정가 10억 → 최저가 7억4천

□ 북구 용봉동 (12층 중 6층 상가) 토 62평, 건 99평
 용봉동 cgv, 굿모닝 터운
 주차완비 / 월세 100만
 ▶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 2억3천

기타 상가(소액) 물건 추천

- 북구 신안동 (10층중 3층 상가) 토 13평, 건 34평 (실평수) 광주역 1분 (월수익 100만)
 ▶ 감정가 1억4,600만 → 최저가 5천2백
- 광산구 쌍암동 (10층 중 6층 오피스텔) 토 1평, 건 8평 (실평수) 보 300만 월 30만
 ▶ 감정가 6천 → 최저가 2천7백
- 상무지구 오피스텔 (13층 중 11층) 토 2평, 건 14평
 상무역 1분, 상무지구 중심가 보 500만 월 40만
 ▶ 감정가 8천6백 → 최저가 6천만
- 남구 주월동 (토지)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123평) 남구청 1분, 4m 도로 접
 ▶ 감정가 3억5천 → 최저가 3억5천
- 서구광천동 (주택) 토 51평, 건 53평
 광천동 재개발 지역
 ▶ 감정가 1억7천 → 최저가 1억7천

경매 무료교육

□ 매주 월요일 10시
 기초교육 / 입찰 방법 교육

▶ 경매 실전 전문반 ◀

실전 교육듣고 바로 수익창출 가능

입찰부터 매매임대, 개발까지 원스톱강의

직원모집
 경매 부동산 같이 할실분 서구 치평동 케이원오피스텔 (한국은행, 현대아파트 사이)

062-511-7800

010-6670-9800

010-7384-7800

010-2699-5300